

항로표지 이용자, 동해해수청 서비스 만족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영)은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2024년도 항로표지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항로표지 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화물선, 예인선, 관공선 및 어선 등의 항해사와 도선사 등의 선박운항종사자

평가 결과, 동해해수청은 전국 평균(85.6점) 보다 높은 점수(87.8점)를 받았다. 참고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의 주요 평가 항목에는 장애복구 신속성, 항로표지시설 시인성 및 관리운영 상태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동해해수청은 2024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강원권역 유인등대(목호, 주문진, 속초등대) 방문객(약 4천여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별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등대방문객은 높은 만족도(3개 등대 평균 92점)를 보였다.

등대방문객 대상 만족도 조사에는 야외·편의시설 관리 상태, 시설물 안전 관리, 직원 친절도 등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항로표지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등대를 포함한 항로표지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들이 자주 찾는 유인등대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책임자	과 장	김동식 (033-520-6271)
		담당자	주무관	현영섭 (033-520-6276)